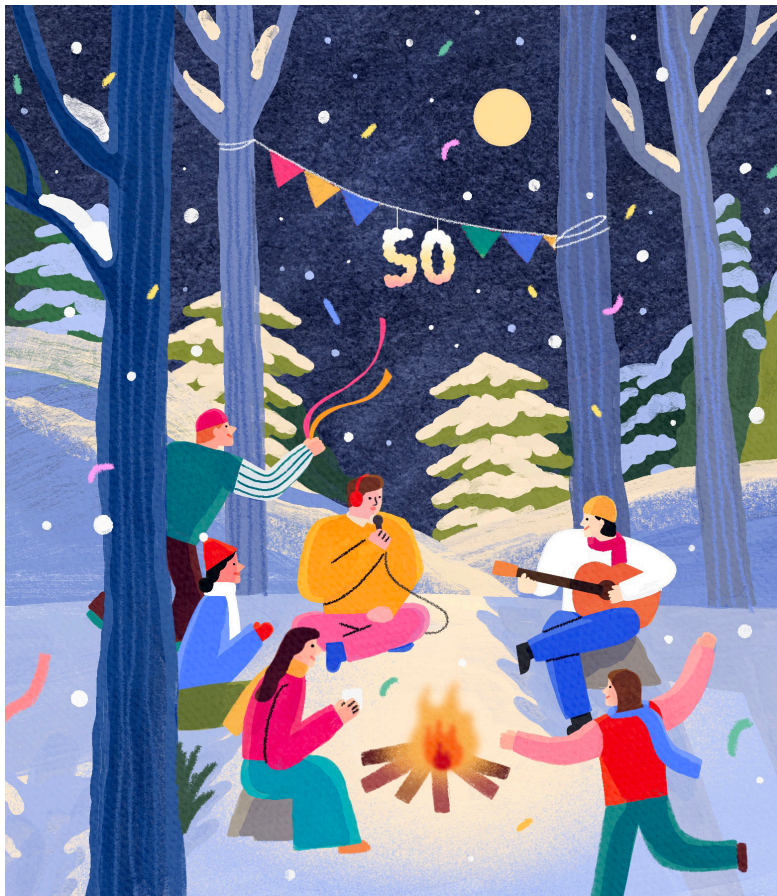


# 여성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2월  
2025



50<sup>TH</sup>  
CREATION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행복을 찾는 사람들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거래고객  
인천더드림병원 김충규 대표

● **존경시민님** 삼익빌 2025-7400호(2025.11.03) 유류권(건2026.12.31)※ 자세한 문의를 가려영접함 또는 고선진(☎1566-2566)로 문의 ○개간영접RP는 예금부호초법예매처 예금부호대상 금융상품권은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성분은 별도로 「국민연금기금법」(운용)을 금융상품 관리회사별 보호성분 보호번호로 함. ○금융회사 시 제정규칙은 납입금률에 수속한 계약자 기타사출금(16.5%)과 유류권 금융상품 계약자를 발행하기 전 제정(서식)시점 및 악의적인 별도 내지 확인하기 바람. ○앞글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법, 제19조 제1항 제4호 B)「검정요령」에 준하여 설명을 받은 것과 같고, 그 설명에 대한 후 개사하기는 불가함

04



##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04 우리 친구 여성시대를 소개합니다

30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끝탕' 외

78 나에게 쓰는 편지  
'장독대 뒤에서 세상으로' 외

106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인천디드림병원 김충규 대표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가득 찬 하루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눈앞의 산

05



106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12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언, 이용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http://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 우리 친구 여성시대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라디오는 어떤 존재인가요?

거리에서 버스에서 집안에서 혹은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도드라지지 않는 친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라디오가 우리 가슴안으로 쭉욱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늦은 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도 들려주고, 내 얘기 같은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엽서나 편지를 보내 발송되기도 했지요. 신기하기도 하지, 내가 청한 노래가 나와요. 여성시대도 그렇게 우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여성시대가 태어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반백 년이라는 그 긴 세월, 여성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을까요?





1975년 봄~

1975년 봄, MBC 라디오에서 '희망음악 임국희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청취자들 엽서를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시간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편지지에 길게 쓴 사연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주인은 청취자들의 긴 편지가 되었고 그해 가을부터는 프로그램 간판도 '여성살롱'으로 바뀌 달았습니다.

1975년 그해는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해’로 천명한 해라 MBC 라디오에서는 기념비적으로 ‘여성’을 프로그램 이름에 붙이고 싶었습니다.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여성이 주도하던 근대 서양의 지적인 살롱 문화를 이 미지를 더해 우리네 사랑방 같은 ‘여성살롱’을 만든 겁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아 여성들의 자리가 더 넓어지기를 바랐지만 그렇다고 여성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살롱 안에 ‘남성고백’, ‘남성살롱’ 같은 코너를 만들어 임국희 진행자와 그 시절 남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진행하며 남성 참여를 높였습니다.

여성살롱 방송 10주년 기념으로 1984년에 한 ‘남성 의식 대조사’도 이 땅의 남녀 모두를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 (20~49세)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 필요한가 물었더니, 65.6%가 그렇다고, 결혼은 인륜지 대사라고 답했고, 31.4%는 '결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군요. 기혼 남성들이 결혼한 이유로는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가 34.4%,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가 16.9%,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가 14.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혼 남성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결혼하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독신을 고려한다'는 남성들은 '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가 30.7%, '일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에 결혼이 방해

가 될 것 같아서’가 28.6%, ‘한 여자에게 일생을 구속받기 싫어서’가 25.5%. 이혼 위기에 대해서는 ‘이혼 직전까지 가보았다’가 21.3%, 그런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32.3%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가 15.4%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77.4%가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1984년과 오늘날을 비교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성살롱은 ‘서울 중구 정동 22번지 문화방송 여성살롱 앞’으로 도착하는 청취자들의 편지와 의식 조사 등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사회 전반을 통찰하게 했습니다.

매일 편지를 방송하고 전화를 연결해서 사람들 의견을 나누는 외에 공개 행사도 많이 진행했는데 정동 문화방송 사옥 뒤편에 있는 공개홀 ‘문화체육관’에서 공개방송을 매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981년 11월에는 임국희 진행자가 박완서 작가와 원주로 가서 박경리 작가와 특집방송을 진행한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문학계의 거봉인 두 여성 문인을 초대한 그 시간은 큰 화제였습니다.





여성살롱은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 교양강좌 시간도 수시로 마련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격렬하게 겪던 당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으며 살 것인가?’ 끊임없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1979년부터 신춘편지쇼를 시작한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봄마다 같은 글제를 놓고 글을 써서 수상자를 가리는 신춘편지쇼는 당시 1등 상금이 100만 원에 응모작이 만 통을 헤아렸더니 얼마나 주목받은 글 잔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서 1985년에는 6.25 특집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사연을 받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감싸안았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월간 여성시대’는 방송한 사연과 여성시대 가족들 소식을 담아 1988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매달 10일 전국의 기업은행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1988년 봄~

안정된 인기를 누리던 여성살롱은 안주하지 않고 1988년 봄에 도약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여성시대’로 바꾸고 이종환 씨가 진행을 맡습니다.

매일 방송하는 편지는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담아 밀도를 더해갔고, 봄이면 신춘편지쇼를 하고, 청취자들 수천 명이 모여 여의도 광장에서 ‘건강 달리기’를 하고, 농촌으로 모내기와 벼 베기 봉사도 갔지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여성들이 버스 타고 ‘농촌 일손 돕기’ 하러 떠나는 모습은 보기에다 장관이고, 도농을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가서 잘 익은 밤을 줍고 공개방송을 즐기는 행사도 가을마다 이어졌습니다.

### 1989년 가을~

1989년 가을이 되면서 여성시대는 두 사람이 진행하는 시대를 엽니다. 언론인 봉두완과 배우 이효춘, 봉두완과 배우 손숙, 손숙과 전 아나운서 변웅전, 손숙과 배우 정한용.

1992년 가을, 손숙 김승현이 진행을 맡아 여성시대는 더욱 활기차집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앞으로 도착하는 편지는 정말 많아서 여의도 우체국에서는 산타할아버지가 어깨에 짊어질 것 같은 커다란 우편행낭에 편지를 가득 담아 방송국으로 실어다 주었지요.

이 시기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당시 여성들을 위해 나를 찾아가는 여행 ‘가을주부나들이’를 마련한 일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의 서러움을 풀어주고자 미고사 결혼식도 마련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줄인 미고사 결혼식은 해마다 100쌍씩 제주로도 전세기



타고 가서 결혼식 올리고 호텔에서 묵으며 신혼여행과 공개방송을 즐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결혼식 사진도 찍어 나눠드렸으니 거실 잘 보이는 곳에 두고두고 걸어두셨을 겁니다.

여성시대 방송 20년을 염두에 두고 1993년 말에는 ‘이 시대의 평균 주부는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월간 여성시대’에 설문지를 넣고 전국에서 도착한 총 5,637통의 답장에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여성시대 평균 주부는 나이 35세, 학력은 국졸 9.5%, 중졸 27.4%, 고졸 54.2%, 대졸 8.8%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나이는 평균 23세, 자녀는 평균 3명, 핵가족이 81%, 키는 평균 158cm, 몸무게 평균 55kg, 허리둘레 평균 28인치, 발 사이즈는





평균 235cm, 머리 모양은 단발에 퍼머가 가장 많고, 주거 형태는 자가 53%, 전세 40%, 월세 6%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은 자영업, 회사원, 경리직, 미싱사, 기능직 순으로 많고, 남편의 직업은 수출업체 종사, 상업, 운전기사, 정비업, 공무원 순. 자가용 소유는 43%. 월수입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월 저축액은 응답자의 절반이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답해 그 시절 가정경제를 그려보게 합니다. 자신 있는 음식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 ‘남편이 가장 미울 때’라는 항목도 재미있네요. 늦은 귀가, 아내 무시, 친정 식구에게 무관심, 자기주장만 내세울 때, 잔소리할 때, 싸우고 말을 하지 않을 때, 반찬 투정 등이 앞순위를 차지하고, ‘스트레스 해소법’도 인상적입니다. 음악과 영화 감상, 시장에 가기, 친구 만나기, 이

불 쓰고 올기, 많이 먹기, 외출, 독서가 보입니다.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집, 자가용, 오디오, 액세서리, 냉장고, 세탁기… 그 외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남편한테 사랑의 편지를 받고 싶다’, ‘컴퓨터를 갖고 싶다’는 항목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스스로 알아서 할 때’, ‘공부 잘할 때’, ‘잠잘 때’, ‘재롱 부릴 때’, ‘사이좋게 놀 때’, ‘맛있게 먹을 때’, ‘부모 마음 알아줄 때’…….

어떻습니까, 1993년을 사는 여성들과 요즘의 여성들,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가요?

1994년과 95년에는 ‘주부가 시인이 되는 밤’을 마련해서 시심을 길어 올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독일, 베트남 등으로 교민을 찾아가 ‘세계 속의 한국 여성’ 특집방송도 이어갔습니다. 해외에 뿌리내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여성시대는 우리의 무대가 지구촌 저 너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 1997년 봄~

1997년 IMF로 불리는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해 봄부터 일터가 부도나고 실직했다는 편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11월에 IMF에 구제금융을 청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그 훨씬 전부터 어려웠고, 여성시대 방송에는 힘겨운 현실을 헤쳐가는 사람들 모습이 편지로 고스란히 방송되었습



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일터를 잃고, 절망 속에서 버티거나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먼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해야 했고, 집과 일터를 잃어서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는 이야기, 화물차를 도둑맞는 일이 많아 생방송 시간에 청취자들 제보로 찾아드리기도 여러 번. 그 모든 기록을 1998년 가을, 특집 ‘벼랑 끝에서 하늘을 보다’와 단행본 책자에 담았습니다.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에서는 그 기록에 라디오 부문 대상을 주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나누고 통일을 소망하며 마련한 ‘부치지 못한 편지에 날개를’ 특집은 아직도 부치지 않은 편지로 남고 말았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은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 국가의 빛을 갉아나갔습니다.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시대 청취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노고를 치하하고, 여성시대 가족들은 국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을 주문했습니다.

그 사이 양희은과 김승현, 양희은과 전유성, 양희은과 송승환이 진행자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신춘편지쇼는 건재하고, 외환위기로 잠시 멈춘 가을주부나들이도 다시 떠났습니다. 가족과 하룻밤 떨어져 지내며 연극과 영화를 보고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캠프파이어와 촛불 의식, 공개방송을 누리며 전국 각지에서 온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2000년에는 여성시대 가족들의 애창곡을 모아 ‘여시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음반도 만들었습니다. 김수희, 김종찬, 소리새, 신승훈, 박상민, 조관우, 김광석, 여진, 이문세, 양희은,



최진희, 정태춘과 박은옥, 정훈희와 김태화의 노래를 CD에 담아 우리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라는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을 청취자 한 분에게 몰아드리는 시간도 종종 마련했습니다. 이 땅의 만팔로 살다가 암을 얻은 마산의 추희숙 씨가 어린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들으며 펄펄 울어버린 청취자들은 특별방송을 만들어 그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아르바이트하러 철거 현장에 갔다가 2층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조카 이군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를 받고는 청취자들이 이군을 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하셨습니다. 청취자들의 기도 덕이었을 까요, 이군은 깨어나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어르

신이 1.4 후퇴 때 고향 평안남도에 두고 온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 하늘나라에도 휴전선이 있나요…”하며 눈물짓자, 청취자들은 그분을 ‘물망초할머니’라 부르며 안부를 여쭙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댈 데 없이 고달프고 외로운 애청자에게 여성시대 가족들은 언니와 동생, 누나와 형, 딸과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2003년 가을부터 문을 연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코너는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향수를, 여성들에게 군대 생활의 다양한 면을 전하며 20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젠더 갈등을 일찍부터 다룬 ‘남자는 왜 여자는 왜’ 코너도 이어갔습니다.

### 서른 살의 여성시대~

서른 살을 맞은 여성시대는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여성시대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서민들의 형편을 직접 전했습니다.

2005년 겨울에는(12/14~12/18) 서울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서른 살의 여성시대 -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그 소중한 기록’이라는 다채로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랜 청취자들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역대 진행자들이 나와 인사드리고, 전국 여성 팔씨름왕 선발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양희은 심수봉의 양심 콘서트, 미고사 양코르 웨딩(30쌍).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손편지와 사진, 상품, 추억의 기념품, 월간 여성시대를 모아 전시하고, 간이 우체국에서 편지를 쓰고, 추억의 음



악다방에 머물고, 즉석사진 코너, 중고물품을 나누는 가게도 열었습니다. 옛날 라디오와 마이크 등 방송 기기를 전시한 라디오 역사관, 그간 발행한 여성시대 단행본(바구니에 가득 찬 행복, 단 하나의 행복, 천금 같은 내 새끼야, 엄마 우짤꼬예, 그래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벼랑 끝에서 하늘을 보다, 손 또는 밥, 내 인생의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사진, 부부로 산다는 것, 곁에 있어 고마워요 등), 월간 여성시대에 연재한 박수동, 강철수, 박재동, 박시백 화백의 만화(여성시대 가족들 사연이 담긴)도 휘장으로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코엑스 간이 스튜디오에서 날마다 생방송도 이어가고 전임 진행자들과 제작진이 모여 좌담회도 열었는데 이 모든 기록은 월간 여성시대 2005년 12월호에 실었습니다.

## 2007년 봄~

양희은 강석우 진행자가 매일 아침 우리와 만난 2008년에는 결혼이주여성들과 대천으로 가을주부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보호자가 된 한글 선생님, 시누이, 동서, 동료, 이웃 아주머니가 함께한 시간은 다인종 다문화로 다양해진 우리 사회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 땀값 값을 전하는 '사랑의 난방비'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 '가족사랑수기 공모전'은 10년 이상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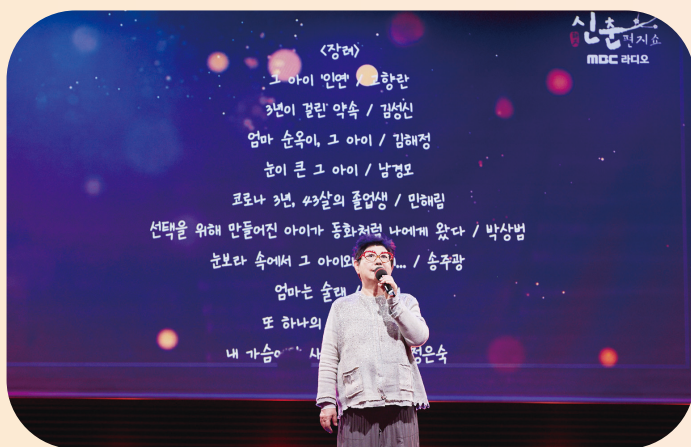
어났습니다.

2010년 추석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방송했습니다. 남다른 사연을 가진 이웃의 사연을 통해 가족 사랑과 만남, 희망을 약속한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서’ 편은 ABU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손편지는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여성시대 앞'으로 도착하고,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보다는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도착하는 인터넷 편지가 더 많습니다. 편지와 엽서, 전화로 소통하던 여성시대 가족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팩시밀리도 활용하셨고, 2000년 전후로는 #8001 휴대폰 문자, 2006



년부터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여성시대를 들으십니다. 여성시대에는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02-789-1004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한밤중에라도 이리로 전화 걸어 말씀을 남기면, 음성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여름부터는 양희은 서경석 진행자가 우리를 아침마다 만났고, 2023년 5월부터는 양희은 김일중 진행자가 여성시대 가족들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삶의 무게 앞에 세상과 시간과 자기 자신 앞에 당당하자는 뜻을 담아 여성시대 가족들이 당신들의 별명을 ‘당당이’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성시대는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도 각별한 자리를 차지해서 여성시대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도 여러 편 나왔습니다.







### 여성시대 방송 50주년~

여성시대 50주년인 2025년, 여성시대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뜻깊은 자리를 연이어 마련했습니다.

50년 동행한 여성시대 가족들과의 깊은 인연을 생각하며 ‘함께, 새로운’을 글제로 신춘편지쇼를 열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시대 가족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하고, 50주년 기념으로 대상 상금은 무려 천만 원!





6월에는 전국의 당당이 1,200분을  
MBC 문화광장에 모시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공개방송을 가  
졌는데 전국의 여사회(가을주부  
나들이 참가자 모임)를 비롯해서  
오랜 청취자들께서 자리하셨습  
니다.





10월에는 애청자들이 보내주신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탕으로 여성시대 가족들만의 노래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를 만들고, 전국의 당당이들과 ‘님과 함께’ 출연진인 만남중창단(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성직자 4인), 양희은 김일중 진행자까지 50인 합창단을 만들어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과 녹음은 음악감독 하림 씨와 김현보 씨가 맡고, 12월 12일에는 골든마우스홀에서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콘서트’도 했습니다.

추석에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과거에 방송한 편지를 나누었



습니다.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던 70년대, 동성 동본이라 결혼할 수 없던 80년대, 쓰레기 종량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90년대, 한류의 씨앗을 심던 2천 년 전후의 팬 문화가 드러난 편지도 정겨웠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그 많은 편지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50주년 기념 필사집 ‘우리 삶이 시가 될 때(김영사)’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취자들과 여성시대와



인연 깊은 명사들까지 모두 100분이 주신 편지 글귀를 담았습니다.

### 여성시대의 내일 또 내일...

우리에게 내일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내일 여성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낼 것이고 많은 것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조리질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 온기에 의지하는 우리 옆에는 내일도 또 내일도 여성시대가 울려 퍼질 겁니다. 지난 50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글 | 박금선 (여성시대 작가)



“  
김의 무제 앞에  
당당한 사람들,  
”

MBC RADIO

#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MBC RADIO 95.9 매일 아침 9시 5분 ~ 11시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 그때 우리는!

여성시대가 태어난 지 50년.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참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상은 여성시대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풍요를 맛보기도 했지만, 성장을 모든 가치의 가장 앞에 두었기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여성시대 당당이들의 모습을 사연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 아름다운 끌팅

김여희 |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01

저는 몇 달만 지나면 4학년 졸업반이 되는 22살의 여대생입니다. 사실 대학 3년 동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고 잊지 못할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졸업이란 단어가 생소할 뿐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던 미팅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미팅의 종류도 다양해서 티 미팅의 ‘티딩’, 야유회의 ‘야팅’, 고고장에서 하는 ‘고팅’, 페스티벌의 ‘페팅’, 수영장에서의 ‘물팅’, 스케이트장의 ‘스팅’, 줄지에 끌려가는 ‘줄팅’, 등산 가는 ‘등팅’ 등.

그리고 보니 1학년 때는 ‘팅순이’라는 명예로운 별명까지 얻었네요. 그 많은 미팅에서 멋진 파트너를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 판에는 거만했고 자존심 세고 건방져서 죄다 놓쳤나 봐요. 철부지의 기분으로 그랬지만 3학년이 다 가도록 그 많은 남자 중에 애인이라 부를 만한 남자가 없으니 속상해

죽겠어요.

한 달 전 강의 시간이 끝난 후 한 친구가 일어나서 “애인 없는 애들 골라서 미팅해라” 하고 소리쳤어요. 창피를 무릅쓰고 30여 명 중 7명 속에 끼인 여자가 되어 미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판에는 ‘이건 마지막 미팅이야. 이것으로 미팅의 막을 내리는 거야. 멋지게 아주 멋지게!’ 하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미팅에 스스로 이름을 지어 ‘end meeting’ 즉 ‘끝팅’을 하기로 했죠.

토요일에 세수를 정성들여서 하고 몇 번씩 거울을 보고 깨끗이 다린 버버리를 입고 그 장소에 갔어요. 번호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앉았어요. 대뜸 건성으로 건들거리며 “몇학년이세요? 무슨 과? 어느 대학이더라?” 하고 성의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기분이 팍 나빠져서 “장난하러 온 게 아니니까 정중하게 다시 인사하지 않으면 가겠어요”하고 나지막하지만 힘주어 말했어요. 그 사람은 표정이 싹 변하더니 일어섰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내 앞으로 왔어요. 아주 점잖은 어투로 “많이 기분 나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하죠” 하고는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3학년이나 되어 미팅에 나왔다는 수치심은 금방 잊고 나도 성의 있게 인사하고 전공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기까지 우리 두 사람 다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끝팅이지만 정중하게 시작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아름답게 헤어져야 한다는 결심으로 나는 꽤 노력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추어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미식축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꽤 열이 나 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줄곧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랬어요. 그는 친



절하게 차까지 태워주었고 “내일 만납시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 꼭 만납시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약속을 정하고는 안 나간다는 나를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나는 다음 날 나갔고 저녁 늦게까지 아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끝탕이라고 정했으니 진정으로 아름답게 헤어진 그 끝탕은 아직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1976년 방송]

그때 우리는!

## 그이와 함께 빨래를

조춘애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02

며칠 전 신접살림을 차린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새 가구 새 부엌살림들로 그득한 집안이 보기에 펍 좋았고 새삼 옛날 신혼 시절이 생각나서 감회가 깊더군요.

마침 일요일이라서 친구 남편과도 자리를 함께했어요. 재미있는 신혼 얘기로 꽃피우다가 남편 되는 분이 깜빡 잊었다면서 “이불 빨아준다는 걸 잊을 뻔했네. 어서 내놔요”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당연한 듯이 장롱을 열어 이불 빨청을 뜯어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전 무척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어찌면 저리도 클까? 둘만 사는 살림이라서 그렇겠지.’

혼자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직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손수건 한 장이라도 빨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신 시어머님께서 결혼 초부터 남편의 일, 아내의 일을 칼로 무 자르듯 딱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남편에게 제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남편도 당연히 그러려니 한답니다.

퇴근하여 집에 온 그이에게 저는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이는 그러네요. 그게 그렇게도 부럽더냐고요. 다음 일요일엔 빨래를 몽땅 해준다고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했어요. 뭐 말로만 그랬지 실상 그이에게 빨래를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 그이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쁠 뿐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일요일에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시어머님께서 외출하실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대문을 나가시기 무섭게 그이에게 일주일 전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이는 밀린 빨래를 몽땅 꺼내 놓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아직 세탁할 때도 안 된 옷까지 잔뜩 꺼내 놓았지요. 그러고는 그이와 함께 아주 재미있게 빨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님께서 잊은 물건이 있다며 대문 안에 들어서신 거예요. 저와 그이는 비누 거품으로 뽀뽀이 된 손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다음 일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지만 저는 생전 처음 남편과 함께 빨래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니 시어머님의 꾸중에도 섭섭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 되었지만요.

[1977년 방송]

그때 우리는!

## 동성동본 때문에 미뤄졌던 결혼

김대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03

**저**는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29세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쪽 뻗은 고속도로를 상쾌히 달리는 기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사람과 저는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산 지 4년, 인연 맺어 안 지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식적인 부부로 세상에 나서지도 못하고 우리의 귀여운 아가는 출생신고도 못 해서입니다. 그것은 김해 김씨라는 동성동본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때는 1977년 봄 진달래가 산을 온통 물들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철없이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귀던 저희가 다투고 화해하고 또 다투는 사이 세월은 흘러 성인이 되었고 저는 서울로 취업했고 집사람은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고 저도 내려가고 이러는 동안 우리 앞에는 넘어갈 수 없는 엄격한 사회윤리와 관습이 있음을 감지했지만 서로가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헤어지고 친구의 주선으로 또다시 만나고 악연인지 인연인지 고무줄 같은 우리 사이는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어렵었고 집사람 집에서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은 해외 근로자로 나가 계셨고 장모님은 저희 때문에 몸져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무조건 합치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양가의 반대에 항거했고 집사람은 우리 집에 가서 수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1987년 9월 12일 귀여운 공주님을 얻었습니다. 이젠 양가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고 드디어 ‘혼인신고특별법’이 발표되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혼인신고 하러 가는 날, 집사람과 우리 아가 이렇게 일가족은 하루 입금-사납금을 몽땅 물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서류라 몇 번이나 다시 적어도 기쁘기에 한량없었습니다. 드디어 호적초본에 올려진 ‘(처)김성옥 (자)김나경’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콧등이 시렸습니다. 이제 곧 3월 13일이면 처 김성옥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도 귀국하셨고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진 특별법으로 모든 이가 구제되어 찬란한 태양 빛을 받게 되길 빌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 나가렵니다.

[1988년 3월 방송]

그때 우리는!

## 나는 기혼 여사원 1호

전영순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04

**결** 혼이란 말이 오가는 스물다섯 살 저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그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면서부터 뚫기 어려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우리 회사에는 기혼 여사무원이 한 명도 없었고 몇몇 선배들이 시도해 보았지만 회사의 은근한 압력에 번번이 물러서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혼이 임박해 있는 한 언니를 만나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우리 회사 사람이고, 회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힘들다면서 배우자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면 꼭 관례를 깨뜨리고 싶었는데 선배로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자 정년 55세, 여자 정년 50세’가 들어있는 인사 규정을 복

사해 놓고 관계 서적에서도 갖가지 법조문을 복사하고 신문에 공고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스크랩해 소중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쯤인 3월 13일로 부모님들에 의해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회사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조용조용 한발씩 내딛으리라’라는 결심으로 여성개발원에서 근로 직장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순서일까요?”

상담 선생님의 대답은 미리 결혼 날짜를 발표하지 말고 이틀이나 하루 전쯤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얘기해 놓으면 지방 발령을 낸다든가 사표 압력이 오고 또는 후임자를 정해 놓았다가 제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제 자리에 새로운 후임자를 앉혀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몇 날을 뜯는눈으로 새우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든 제가 갖출 예의는 갖추기로 하고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 결혼하게 됐어요. 3월 13일입니다.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갑자기 과장님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그 뒤 과장님은 저 모르게 몇 번을 인사과에 오가셨고 부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평소 야무지고 깔끔해서 살림도 잘할 것이라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친구에게 부탁해서 ‘모 전자 회사의 판매직으로 추천하겠다. 선배 누구도 관례를 깨뜨리지 못했고 아무튼 우리 회사는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혼한다는 것과 일을 계속한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의 한 달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과의 신경전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폭발하려 했지만 어려운 순간 일수록 냉정을 찾으려고 애쓰며 과장님께 차근차근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셔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압력에는 약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려오고 손에서 땀이 날 정도입니다.

한창 행복의 설계로 단꿈을 꾸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남자였다면 하지 않아도 될 회사와 신경전을 하느라 무거운 마음으로 결혼 날을 맞았습니다. 여사원은 결혼하면 사표를 내야 한다는 조문은 헌법 어느 구석에도 없었으므로 식을 올리던 날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의 경조 휴가가 끝나고 첫 출근 하던 날 ‘지방으로 발령이 나 있지 않을까, 어떤 신입사원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등 갖가지 생각으로 무거워진 발걸음을 사무실에 들여놓는 순간 “행복하세요?” “결혼하니까 좋으세요?” 등 동료직원들의 밝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상의 신입여사원 대신 저밖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주일치나 쌓여 있었습니다. 아! 반가운 나의 일감들. 어떤 결



과가 내게 주어진다 해도 진실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던 저의 다짐에 겸허한 마음을 한 겹 덮었습니다.

“언니는 할 수 있어!”라며 많은 용기를 북돋아 준 직장 후배들. 이제 겨우 한 가지는 해놓았으니 ‘정당한 권리 앞에 굽히지 말라’는 조언 한마디는 후배들에게 뚝뚝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988년 6월 방송]

그때 우리는!

##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주창희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05

여보! 지금 시곗바늘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소. 만물이 아직은 조용히 잠든 시간 이따금 들리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적막을 깨뜨릴 뿐 조용히 하기 그지없고, 오직 나의 안전모에서 빛나는 안전등 불빛만이 나의 시선을 밝히고 있소. 이제 막 막장을 순회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동사 무실에 나왔다오.

여보! 우리가 인연을 맺는 지도 어언 24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려. 당신의 아름답고 고운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곱던 피부가 어 느덧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소.

살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또 내일 아침 걱정,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 속에서 당신이 남의 집 밭에 나가 김을 매주고는 조금씩 얻어오는 양



식으로 우리는 끼니를 때웠지요.

남편이라는 자는 백수건달로 지내다가 둘째 놈 태어나고 3일 만에 훌쩍 군에 입대하고 홀시아버지 모시고 연년생 어린 두 아이 데리고 고생하며 살아간 당신. 지금 생각해도 당신처럼 복 없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는 줄 아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 그 추운 엄동설한 눈보라 속 10리도 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 몸무게보다 더 큰 나뭇단을 머리에 이고 오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나의 눈에 선하다오.

여보! 내가 군에 입대한 후 베갯머리 끌어안고 밤마다 눈물로 세월 보낸 당신을 내가 왜 모르겠소.

정말 장하오. 당신은 시집오던 해에 첫아들 낳고 다음 해 봄부터 시어머니 병간호에 골몰했소. 가을에 시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두 달 후에 둘째 아이 낳고는 3일 만에 남편을 군대에 보냈지.

여보! 외동딸로 곱게 자라 못난 나에게 시집와서 힘에 부친 갖은 고생 다 하며 제대로 먹지 못해 얻은 당신의 결핵성 늑막염!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소. 고진감래란 말과 같이 이제 우리도 당신의 알뜰한 정신과 내조 덕분에 남의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되었고 특히 우리 아이 삼 남매 다 키웠으니 무엇보다 기쁘구려.

당신이나 나나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고 꺼리던 광산, 그 광산에 들어온 지도 벌써 14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려.

그동안 근속상, 저축상, 모범상 그리고 무재해상에다 지난 12월 창립기념일에는 우수상까지 받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은 오직 당신이 잘 해준 내조 덕분이 아니겠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년, 한 일 없이 앞만 보고 뛰다 보니 어언 씬이 되었구려.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과 관광여행은 꿈도 꾸지 못한 우리. 진심으로 당신에게 미안하오. 결혼기념일 또한 제대로 기념해 보지 못한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라고 원망도 많이 했을 당신.

다가오는 1992년 3월 8일이면 우리의 결혼 25주년이오. 돈 쓰는 일이라면 적극 반대하는 당신이지만 여보! 우리 그날만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도록 합시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내. 어느 누가 자기 아내를 자랑하지 않는 이 있으리오만 누구보다 더 진하다진한 나의 사랑, 당신은 알고 있지. 응?

벌써 막장에서 종업원들이 작업을 끝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이동사무실에 새 달력을 걸다 우리들의 결혼기념일과 당신이 생각나서 이렇게 필을 들어본 것이오.

나도 이젠 종업원들에게 작업 보고를 받고 퇴깁 준비를 해야지.

명희!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건강과 우리들의 사랑을 기리며...

[1991년 2월 방송]

그때 우리는!

## 촌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주정희 | 경남 진해시 거주동

06

“에 미야, 밤차 타고 새벽에 내려서 그 낯선 땅에서 우찌할 끼고! 고마 이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거래이~”

여성시대 나들이를 가던 날, 하나뿐인 외며느리 어찌 될까 봐 걱정하는 시어머님께서 손에 쥐여주신 비행기 샅으로 생전 처음 한양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남편이 김해공항까지 배웅해 주며 ‘출구는 3번이고 겁내지 말고 천천히 탑승하고 안전벨트 꼭 매고 촌놈 티 내지 말고 즐겁게 놀다 오라’고 출구를 빠져나갈 때까지 아이를 물가에 내보내는 것처럼 염려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소리치며 출구를 빠져나와 비행기를 본 순간 처음 가까이에서 본 비행기는 큰 괴물 같았다. 가방을 왼 손에 힘을 꼭 주며 사람들을 따라 비행기에 천천히 오르는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영화에서 보던 멋진 장면을 상상해 보기도 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이륙한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멀미가 나기 시작해서 더럭 겁이 나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너무 무서웠다. 아이를 셋 낳아도 이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덜덜덜’ 이륙하는 비행기 소리와 함께 내 몸도 같이 떨렸다.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물을 청하자 곧 생수 한잔을 가져다주며 물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예, 비행기를 처음 타서 그래요.”

아차! 실수했다. 그냥 멀미 난다고 그러면 될 걸 왜 촌티는 냈을까. 내친김에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아가씨, 내 곁에 좀 있으면 안 될까요?”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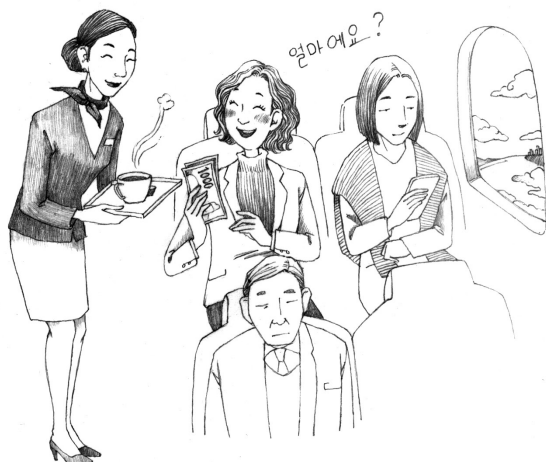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저만큼 가버렸다. 죽은 듯이 엎드려 비행기가 창공에 뜰 때까지 눈을 감고 옆자리 빈 의자를 꼭 붙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혔다.

‘아! 그래 저 커피를 한잔 마시면 좀 진정이 될 거야.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커피는 한잔에 얼마일까? 기차 안에서는 육백 원 하던데 비행기니까 좀 비싸겠지? 천 원, 이천 원? 까짓것 한잔 사 먹지 뭐!’

돈 이천 원을 손에 쥐고 지나치려는 커피 장사 아저씨(?)께 커피 한잔을 청했더니 상냥한 대답과 함께 블랙커피와 설탕, 프리마는 따로 주었다.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싱긋이 웃으며 “서비스입니다~” 하고는 멀어져



갔다.

아! 이 창파~ 주부 나들이고 처녀 나들이고 그만 집에 가고 싶어졌다. 남편은 ‘혼놈 티 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왜 비행기 안에서 커피는 그냥 마실 수 있다는 정보를 빼먹었을까. 아이고, 미칠 것 같다. 나는 멀미가 나지 않아도 멀미 나는 척하며 45분을 45시간으로 느끼며 서울이란 곳에 도착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 뒤만 졸졸 따라 내려서 개찰구를 향하다 그만 부산에서 비행기표 반쪽 받은 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던 길을 되돌아 막 비행기 쪽으로 뛰어가니 제복 입은 아저씨가 물었다.

“아주머니, 어딜 가십니까?”

“비행기표를 금방 내리면서 잃어버려서요.”

“그 표 뭐 하시게요?”

“나갈 때 내고 나가야지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에고, 이 망신을 어찌! 또 남편 얼굴이 떠오른다. 어찌자고 세상 물정을 이리도 모르게 집안에만 가둬 두었는지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진다.

손숙·김승현 씨, 나이 마흔넷이 되도록 이 모양이니 정말 기가 막히죠? 처음으로 외박까지 할 수 있는 나들이라 무척 가슴 설레며 떠났습니다만 출발에서 너무 엉망진창이 된 자신을 추스를 수 없더군요.

꿈에 그리던 여의도는 황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화방송을 찾기 위해 길을 물을 때도 청년들이 제 사투리에 웃음을 참지 못해 킁킁거리는 소리에 그만 온몸이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부 나들이에서 여러 친구를 만나고 멋진 프로그램을 보며 순간순간 황홀감에 젖어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다섯 번이나 자리가 바뀌었는데도 짜증 한 번 내질 않았고 돈 주고 사 먹는 커피 맛도 일품이었고, 손숙 씨가 쓰신 <사랑하는 친구>에게 책도 재미있게 읽으며 돌아왔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은 멧쩍은 미소로 반기며 묻더군요.

“어때, 비행기 타보니 좋제?”

“그럼요. 비행기 안에서 커피도 주던데요. 두 잔이나 마셨지요.”

“거 공짜라고 두 잔씩이나 마셨어? 하하하~”

아!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내일 아침 도시락 반찬을 걱정해야겠습니다.

[1994년 11월 방송]



그때 우리는!

# 25년 설움을 이제사 풀어볼까

이창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07

**매** 일 아침 저와 제 처는 ‘여성시대’를 들으며 봉고차에 몸을 싣고 하루 생활을 시작합니다. 손숙·김승현 씨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갖가지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고, 저희 부부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40대 부부입니다.

며칠 전부터 방송되는 ‘미·고·사 결혼식’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십사 양망하며 한 많은 우리 부부의 애절하고 고달픈 인생 역정을 몇 번의 망설임 속에 용기 내어 적어 올립니다. 용기와 자신감, 저돌성이 모자란 제 웅졸함을 원망하며 이번 기회에 처에게 면사포를 씌워 주고픈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금년 49세, 제 처는 48세로 지난 1969년 봄 친구 소개로 만나 처음에는 외로운 처지에 이성으로서보다 친구로 자주 만났

으나 그해 여름에 제가 군 입대 영장을 받으면서 갑자기 깊은 사랑에 빠져 장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여 3년의 전방군대 생활 중 외출, 외박, 휴가 시 거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화려한 장래를 설계하다가 제대 말엽부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피치 못할 사연으로 두 번 유산하고 몇 년 후 큰딸아이를 낳게 되어 그동안의 사연을 알고 계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시켜 주십사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전주 이씨 월산대군이라는 자존심 강한 가풍을 이어온 저희 집안 어른들께서는 그 당시 가세가 기울어 시골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며 칠 남매를 키우던 제 처 집안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니 양반인 양 하시는 제 부모님과 집안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극구 반대 속에 저희 세 식구는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세파에 시달리며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아버님께서 저를 수소문하여 찾으셔서 1976년 봄 친지에게 부탁해 해외 건설회사에 취직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해외현장에 파견되어 10여 개월 중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아내와 딸을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우리 부부를 쪼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제 집안 어른께서 제 처한테서 큰딸애를 데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귀국을 결심하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처와 어린 자식을 저버릴 그런 못된 일은 제 양심으로 행할 수 없어 급히 귀국해 큰딸을 아버님 댁에서 몰래 데리고 와 무작정 상경하여 우리 부부는 정식 혼인신고를 하고 그제야 큰딸 아이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서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극구 반대하시는 바람에 반항으로 운명으로 시작된 저희 살림살이는 이불 한 채, 손가락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울 봉천동 달동네에서 월세방 살림으로 시작했으니 저희 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큰딸을 데리고 낮에는 막노동판에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끌고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하나둘 늘고 우리 부부는 서로의 집안 어른과 형제 심지어는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고 언젠가는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열심히 살아왔으나 몇 해 전 우리의 사실혼조차 반대하시던 제 아버님과 제 처의 아버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어머니와 형제 친지들, 처제도 반대하니 여섯 식구 모두 함께 죽자고 연탄불을 피운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런 말 못 할 애절한 사연도 모르고 철없는 자식들이 다른 집안같이 저희 부부 결혼사진을 보자고 조를 때 찢어지는 저희 부부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몇몇 친한 친구조차 저희가 이렇게 결혼식조차 못하고 아이들을 낳고 사는 줄 모릅니다. 지인들 결혼기념일과 집안 애경사에 초대받아 갔다 올 때는 아내와 저는 서로 우울해지고 급기야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부부가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살아온 지도 25년. 작년부터는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처음 살림을 시작한 그해 12월 6일을 매년 결혼기념일로 삼고 여섯 식구끼리 간단히 외식이라도 하며 그동안의 어려운 삶과 애환을 돌아보며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양가 집안 모시고 조용한 절이나 성당을 찾아 간단한 혼인식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주위 환경이 열악하고 번



잡스럽고 저 자신도 용기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입니다.

저희 부부 25년 살을 맞대고 살며 딸자식 넷을 충실하게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양가 집안 식구들 서로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이 신세. 이제 조그만 철물건재상을 하며 먹고 입고 누워 자는 데는 큰 불편 없으니 양가 집안 어른과 친지, 주변 친구 몇몇이라도 모시고 이 불행한 제 과거를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며 축복 속에 아내에게 면사포라도 씌워 주고픈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하나만을 바라고 부모 형제 친구들조차 멀리한 아내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미·고·사 결혼식'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1996년 5월 방송]

그때 우리는!

# 쓰레기 종량제로 몸살 앓는 하수구

안재숙 | 부산광역시 남구

08

**저**는 하루라도 여성시대를 듣지 않으면 귓속에 가시가 돋는 애청자예요.

제가 사는 곳은 작년 10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버리니까 깨끗해서 좋긴 한데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져 여성시대에 하소연하려고요.

우리 집은 큰길에서 멀어서 새벽마다 시간도 일정치 않고 소리조차 안 들리는 청소차를 기다리기가 불안해서 부득불 사설 수거업자에게 맡기고 있지요. 연탄재 포함해서 월 오천 원이니까 비싸지 않고 오히려 고맙지요.

하지만 기껏 분리한 것과 잡쓰레기를 몽땅 같이 넣어가니까 속상해요. 재활용품을 ‘가능하면 잡쓰레기와 같이 넣어버리라’는 주문까지 하더군요. 종량제 시행 후로 웬만한 찌꺼기는 하수도로

내보내서 오히려 환경을 더 해친다는 기막힌 얘기도 수월찮게 들려요.

처음에 봉투 받을 때 안내 용지를 달라니까 통장 댁에 그런 홍보물은 없고 자기들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전화 해 보니 새해에도 기본 봉투는 준다더니 어제 만난 동사무소 직원은 안 준다고 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난 10월에는 연말까지 쓸 석 달 치 봉투를 받았는데 한 사람 앞에 1개월용으로 10리터짜리 6개씩, 저희는 세 식구라 54개를 받았는데 그동안 18개를 쓰고 36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웃분들도 저희처럼 쓰레기봉투가 남아돈다는군요. 그러니 사서 써도 그렇게 큰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넉넉잡은 살림이라 버릴 게 적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넉넉해도 버릴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된 셈인지 담벼락 및 후미진 곳에는 몰래 버리는 쓰레기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길 가던 어린아이, 학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캔, 과자봉지, 담배꽂초, 하얀 쌀밥이 그득한 비닐봉투까지 버려요.

“그래~ 남아도는 봉투 어디다 쓰랴. 치워서 깨끗이 해보자. 깨끗하면 안 버리려나!”

저는 화를 내면서도 죄다 집게로 집어 우리 집 봉투에 담아 치워도 그 뒷날이 되면 또 쌓입니다. 널빤지, 플라스틱류, 각색의 비닐봉투에 든 쓰레기.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라야 하는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밥에 반찬까지 먹고 산다는 겁니까? 준 봉투는 다 쓰고 자기 돈 들여 사는 봉투값은 아깝고 하얀 쌀밥은 안 아

갑단 말입니까? 아직 점심 거르는 아동들도 있다는데 헉헉대며 보릿고개 넘어온 기억이 있음직한 나이라면 어떻게 그런 정신을 가진단 말입니까?

어느 날은 저희 담벼락 밑에 쓰레기를 버리던 예순쫄의 옆집 할아버지가 제게 들켜서 거기 있던 쓰레기를 다 치우는 벌과 함께 제 훈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건도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점상 할머니는 장사 끝날 무렵에 주위의 쓰레기를 싹싹 쓸더니 그걸 글썽 도로 옆 하수도 구멍에다 부지런히 밀어 넣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기가 차서 “할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여름에 비 오면 물난리 날까 봐 일부러 그 뚜껑 열고 청소하는 것도 못 봤어요? 할머니는 집에서도 하수도 구멍을 쓰레기로 막아요?” 하며 화를 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헛 빗질만 계속하시더군요.

나쁜 짓을 보고도 무관심한 분들도 잘못입니다. 스스로 못 고친다면 호되게 창피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돈이 조금 들더라도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양심껏 더불어 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것은 반성하고 고칩시다. 남에게 피해나 주는 사람은 차라리 지구를 떠나십시오!

[1995년 1월 방송]



그때 우리는!

## 이익은 많이 일은 대충대충!

허복실 | 경기도 광명시

09

**비**가 내린 후 오늘의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가 궁금해진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가 충격이고 우리 가게가 삼풍백화점 야외 주차장 가까이에 있어 그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삼풍아파트 앞에서 옷 수선 가게를 하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6월 29일 그날도 열심히 일하는데 손님 한 분이 백화점 지하 1층 슈퍼와 제과점에서 불일을 보고 땀을 흘리며 저희 가게에 들렸습니다. 옷 가봉을 하며 하시는 말이 “백화점에 불이 났나? 이것 봐, 땀이 이렇게 나잖아. 아니, 에어컨이 고장 났나? 찜통 같아. 그래서 빨리 나왔지.”

그 말을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점



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6시에서 7시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식 안 먹어도 되겠다. 점심 먹은 게 아직 안 꺼졌어.”

저 역시 그날은 웬지 백화점에 가고 싶지 않아 늘 가던 백화점 지하 제과점에 가는 일을 미루고 그러자고 했죠.

얼마 후 웬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뛰어왔고 놀라서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백화점 아가씨들 모습이 예사롭지 않고 백화점 A동 쪽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처음엔 ‘손님 말씀처럼 에어컨이 터졌나?’ 했죠. 그런데 뛰쳐나온 직원들이 백화점이 무너진 거라지 뭐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기로 착각했던 것이 백화점 절반이 무너진 먼지라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 신발 한 짝만 끌고 나오며 새파랗게 질린 모습, 검댕이 여기저기 묻은 모습, 다리 한쪽에서 피가

나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 평소 안면이 있던 슈퍼 야채 코너의 아줌마가 자기 옷과 가방을 안고 멍한 얼굴로 맥없이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고 기쁘고 눈물이 나던지 “아줌마, 괜찮아요?” 하는 말만 연거푸 했을 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소지품을 제게 건네며 “이것 좀 맡아줘요” 하고는 다시 백화점 쪽으로 가시는데 말리지도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낯 나간 모습으로 다른 분과 팔짱을 낀 채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오는데 어찌 된 일이나 물어도 말도 못 하였고요.

밖에선 백화점 직원들과 파견사원들이 자기 부서 사람들이 안전한지 안부를 확인하느라 아비규환이고요. 저희 가게에는 전화로 살아있음을 알리려는 사람들로 줄을 섰고 자기네 상사가 안 보인다고 본사로 전화하며 통곡하는 사람, 질린 상태에서 전화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사람. 가슴이 떨리고 제 다리도 후들거려 진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는 우리 가게 전화가 안 되니까 너무도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며 듣는 목소리들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남편 친구가 백화점 2층에서 일했는데 그분은 뿌연 먼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집어쓴 채 손을 힘없이 들고는 “나 살았다!” 하며 나타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입속 먼지 때문에 헛구역질하며 병원에 가자는 손을 마다하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살았어. 오전부터 이상한 느낌은 받았지만 무너진다고 해도 설마 2층까지 어떻게 되겠는가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비통해하며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어느 정도 먼지 연기가 가라앉자 웅한 건물의 섬뚝한 모습이 요란한 헬리콥터와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이 모여면서 가게 안은 초상집이고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까무러칠 상처를 입고도 다만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같이 웃던 동료, 친구, 상사들 모습이 보이질 않음에 가슴 아파하며 현실로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백화점 벽과 천장에 오전부터 금이 갔고 4층은 벌써 조짐이 보여 통제하며 부분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찌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는지요. 심각한 조짐이 보일 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라도 했다면 이 많은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요!

일하기조차 죄스러워 가게에 나가서는 전화통을 내주고 TV만 내주고 물수건만 내주며 안타까워할 뿐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백화점 A동 쪽으로는 TV에서 보이는 대로 처절한 절규 속에 온정과 땀이 아름답게 승화되고 있지만 B동 쪽에 위치한 저희 가게에서는 아직도 깨끗하고 화려한 건물 뒤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건재하며 서 있기에 실감하기가 더 힘듭니다.

일요일에 젊은 아가씨가 구조되었지만 끝내 죽고 말았다는 소리에 가슴 아팠는데 그때 구조 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군과 관의 싸움은 정말 못마땅하더군요.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그 좁은 통로에서 촬영하느라 빠져나갈 틈을 막았고 그 많은 군·관·자원봉사자·소방대원들의 무질서는 왜 그 모양인지? 오늘에야 체계가 잡혀가니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할 체계조차 없고 서로 자기들이 먼저라며 공치사만 하려 드는데요. 전화하러 온 소방대원이 혀를 차며 무더기로 싸운다고 한심스러워하더군요.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밟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잔인하고 상식 없는 백화점 측 윗사람에다가 이 혼란한 틈을 노리는 몰상식한 도둑들은 또 웬 말이랍니까? 자가용을 꺼내러 이제야 백화점 주차장에 갔다 온 손님은 창문이 다 깨지고 부속까지 망가져 가슴 아프게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백화점을 금방 나섰는데 뒤에서 우르르하며 회오리바람 소리와 함께 몸이 저만치 날아가 떨어졌다는 손님도 있고 또 한 분은 보쌈을 해먹으려고 고기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아는 아파트 주민이 오랜만이니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자는 걸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빨리 보쌈을 해서 먹고 싶은 마음에 다음으로 미루고 그들은 프라이팬 사러 슈퍼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고 그 시간이 찍힌 영수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종자가 되어 버린 이웃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자료와 증인이 되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픈 마음일 겁니다.

10년도 안 된 건물이 이처럼 어이없게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다니 보면서도 믿기 어렵고 사실로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강대강, 대충대충, 빨리빨리, 이익은 많이, 노력은 적당히’라는 이 깊은 병을 고치지 않는 한 희생은 계속될 것임을 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퇴근길, 실종자 가족의 농성을 보는데 진작 막을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왜 묵인했느냐는 분노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게 치솟았습니다.

[1995년 7월 방송]

그때 우리는!

## 또 오지 마세요

강순이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

**손** 숙·김승현 씨,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 아픔이 많았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식당을 하다가 몸이 아파 쉬고 있는데 면회 오는 사람들과 재소자들의 가족이 되어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운 적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순간의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가족의 아픔은 물론 경제적인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요즘 많은 사람이 사업 부도로 또 여러 가지 범죄로 교도소에 방이 모자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식당 일하며 겪은 얘기를 써볼게요. 직장이나 집이 멀어서 면회를 자주 못 오는 분 중에는 저에게 전화해서 대신 면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음에 올 때 줄 테니 사식과 영치금도 부탁하는데 바빠도 거절을 못 하겠더군요.

그중 부산에 사는 한 아주머님은 고맙다고 손수 스웨터를 떠 보내주셨어요. 순간의 실수로 이곳까지 오게 된 아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입에 넣지 못하고 구치소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셨습니다. 다행히 아드님께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 곁에서 장사를 도우며 착실하게 생활한다니 제 마음까지 흐뭇해지는군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본시 나쁜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어찌어찌 살다 보면 생활과 주위 환경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의 품성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드나 봐요.

출소하면 저희 식당을 거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차비가 부족하니 얼마만 빌려주면 다시 와서 갚겠다고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의 돈을 손에 쥐여주면서 “안 갚아도 좋으니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여러 번이지요. 이곳에서만 큼은 “또 오세요~”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저만의 인사법입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날에는 재소자들이 일명 닭장차에 실려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모습을 보며 기도드립니다. 재판 결과가 좋아서 저 높은 담장 안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자유가 그리울까, 가족들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 어떤 어머님께서는 구치소 옆에 월세방을 얻어놓고 자식이 나올 때까지 면회를 다니며 근근이 생활하셨습니다.

재소자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지요. 그 안에서도 돈이 많으면 왕노릇을 하나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범털’이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개털’이라 한답니다. ‘밖에서는 팔아 없애고 교도소에서 먹어 없앤다’는 말이 있더군요. 돈이 없는 가족은 변호사를 선





임하려면 빛을 내야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 옥바라지 하는 가족도 봤습니다. 영치금과 사식을 자주 넣어 주어야 좁은 공간에서 남에게 기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밀리에 거래되는 담배 한 개비에 일만 원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곤히 잠든 새벽에 저 높은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앰블런스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까지 불안해집니다.

요즘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어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을 잃게 되고 앞으로 가족들과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해서 술 한잔에 시름을 달래고 그렇게 불만을 토해내다 싸움에 이르게 되나 봐요.

어느 주부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편이 교도소까지 오게 되었는데 남편을 빨리 나오게 해준다는 브로커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삼백만 원을 누군가에게 건네주었대요. 뒤늦게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군요.

재소자 가족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도소나 구치소 주위엔 일명 ‘브로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지요. 자기네 가족도 이곳에 들어왔는데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요번 재판을 받으면 나오게 된다고 하지요.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말을 거들면 처음 당해본 사람은 누구나 속아 넘어갑니다. 브로커들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몇 퍼센트의 돈을 받는답니다. 물론 대변해 줄 변호사가 있어야 하지만 실력 있고 떳떳하게 대변해 줄 변호사라면 사기꾼을 고용할 리 만무하지요.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발 경제가 하루빨리 좋아져서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그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불행도 없어졌으면 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법 앞에서는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수감자와 가족들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져주세요.

[1999년 1월 방송]

그때 우리는!

## 한보철강 응원해 주세요

이홍배 | 충남 당진군 송악면

11

**안**녕하세요, 양희은·김승현 씨.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회사 한보철강의 특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7년 1월 24일로 부도가 난 후 전 직원이 상여금 반납, 경조사비 50% 삭감 등으로 근근이 버텨오다가 1997년 가을 건설 중이던 B지구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1998년 7월 1일 열연 공장의 가동 정지로 400여 명의 직원들이 휴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원 147명인데 자진 사직, 희망퇴직 등으로 많은 사람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70명이 휴직하고 14명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잔류자와 휴직자들은 서로 공감하고 감싸주며 살고 있습니다.

휴직자들은 고용보험 혜택과 회사 측의 지원으로 1999년 10월까지는 통상임금의 70%를 매월 지급받았으나 고용보험 혜택이 일자 초과로 중단되자 회사 측의 지원금 35%로 생활하고 있으니 생활고의 어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새 직장을 얻으면 이중 취업으로 걸리고 사표를 내고 옮기자니 매각이 임박한 데 매각자 측에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니 옮길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하루하루 회사의 매각 소식에 귀 기울이며 일용직 근로자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동료들을 지켜볼 때 회사에 남아 재가동을 위해 설비 보전 작업을 하는 저희 잔류자들의 입장은 너무도 미안하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함께 소주 한잔할 때면 이야기 도중 터져 나오는 울음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다 끝나는 자리가 여러 차례라 서로들 미안해서 연락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잠자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저희 회사를 IMF의 근원이라고 말할 때 저희는 숨죽이고 열심히 일하며 회사가 일어서면 옛날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열과 혼신을 바쳐 일하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는 요즘 저희 회사도 외국사의 컨소시엄으로 매각이 임박하여 공장의 재가동을 학수고대하며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1998년 6월 30일 공장장님을 통해 잔류 요원으로 통보받았을 때는 마냥 좋고 의기양양했으나 주위 동료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

무도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휴직도 벌써 1년 7개월째로 지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설비만이 덩그러니 그 육중한 몸체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 때도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동만 된다면 최고의 품질로 최대의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정상 재가동하면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귀하여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혼과 정열을 담은 제품이 지구촌 곳곳으로 널리 수출되어 국가의 경쟁력 및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매각이 성공리에 완결되어 모두 웃으며 출근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그동안 휴직한 직원들의 고생이 좋은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저희 당진제철소 전 임직원을 꼭 기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2000년 2월 방송]

그때 우리는!

## 새해 첫날 복을 팔았더니

전명숙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2

저는 하위직 공무원으로 11년째 근무하고 있고 아이 아빠는 속셈 학원을 하고 있는데 IMF가 되면서 공무원 월급이 줄어들고 학원에도 아이들이 대폭 줄어들어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 내놓는 생활비는 예전에 비해 50% 줄었고 적금이며 아이들 교육보험도 하나둘씩 줄었어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며 적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복조리를 5,000원 주고 샀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복조리 장사를 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아이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복조리 파는 일, 자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대학 다닐 때 해봤는데 벌써 10년 지난 얘기고 지금은 그때와 인심도 다르고 더럽고 치사한 소리 들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 있어? 여보, 남편

이 못나서 미안해.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하고.”

저는 방산시장에 복조리 만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필리핀제는 단가 700원, 국산으로 수술과 매듭과 고추가 2개 달린 것은 단가 1,700원. 비싸도 우리나라 것이 예쁘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시아버님께 상의드리니 200개 정도 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500개를 하고 싶었어요. 자본금은 1,700원×500개=85만 원에 5,000원씩 받으면 250만 원, 자본금 빼고 3,000원 주는 사람, 안 사겠다는 사람 등 일어날 수 있는 요인 감안하고 10만 원만 벌어도 그게 어디냐고 남편에게 설명했죠.

12월 31일 복조리를 주문했는데 너무 급하게 주문해서 350개만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왔고 350개 값 595,000원을 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복조리를 마당에 던져주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주택이 많아서 던지지만 지금은 아파트나 연립이 많으니 복조리에 손잡이가 필요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시부모님, 남편과 저는 복조리에 손잡이용 고리를 만드는 가내 수공업 공장을 열었지요.

1999년 1월 1일 새벽 4시 30분에 남편과 복조리를 돌리기로 했는데 걱정이 되어 뜬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드디어 4시에 남편을 깨웠더니 남편은 복을 나누어주러 가니 정갈하게 가야 한다고 깨끗이 몸을 씻지 뭐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희 아파트 옆 연립주택부터 돌렸는데 복조리를 문에 걸며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바빠 돌리다 보니 출기보다 오히려 더웠어요. 아침 6시 50분까지 350개를 모두 돌리고 돌아왔어요.

겨울이라 빨리 어두워지니 오후 4시경 복조리 수금을 나갔





어요. 첫 집, 둘째 집, 땡땡땡땡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기척도 없고 세 번째 집은 복조리가 장독 위에 올려 있었어요. 어떤 집은 “누가 마음대로 가져다 놓고 돈 받으러 오래요? 복조리 거기 있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하고 문도 안 열어주었는데 밖에는 누가 들고 갔는지 복조리는 없고요. 문고리에 복조리가 그대로 걸려 있는 집도 많고 가끔은 제가 예상한 금액 5,000원을 주는 분도 있었어요. 한 육칠십 집 들고 어느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였어요.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복조리 받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조리 값 받으러 왔어요.”

“누구야? 아니 그냥 걸어놓고 돈을 받으러 와?”

화난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더니 물이 열리고 평소 아는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순간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물러나려는 순간 아주머니는 “아니예요. 여기 있어요” 하며 돈 5,000원을 내밀었어요. 내미는 내 손의 비참함. 그 아주머니의 표정. 완전히 굳어 버린 남편 얼굴.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어요. 남편은 이러더군요.

“그만두자.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욕먹겠다. 새해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저는 본전 생각이 나서 남은 집들 돌겠다고 했고 결국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꼭 싫은 소리를 해야겠어!”

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났어요. 집 앞에서 얼굴을 가다듬고 들어가자 시부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울다 나왔더니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나~ 세상은 네 생각과는 다르단다. 이 조그만 손으로 복조리 돌리고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었지? 난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 일이 네 인생에 큰 경험이 되리라 생각했기에 그냥 두었다.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먹어라.”

아버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부모님, 시누 내외, 남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1999년 새해 첫날이에요. 계산해 보니 수입은 15만 원. 45만 원 정도는 손해를 봤죠. 한 달 생활비를 번 것이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몽땅 날려버렸어요. 괜한 짓해서 시부모님 신경 쓰이게 하고 남편 속상하게 했지만 좋은 시부모님과 착한 남편, 아이들과 함께 더 절약하며 직장에 충실하며 살아갈 거예요.

[1999년 1월 방송]

그때 우리는!

## 못 말리는 오빠 부대

윤선희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

저는 ‘여성시대’ 왕 애청자 엄마를 모시고 사는 그분의 딸, 중3 소녀 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모범적인 학생이라 아침에는 아저씨, 아줌마의 방송을 들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못 말리는 두 친구 때문이라 합니다. 아저씨, 아줌마도 방송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런 학생 중에 제 친구들을 보거든 얼른 집으로 보내 버리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한 민경이, 4학년 때부터 친한 태정 이. 우리 셋은 무지하게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친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H.O.T의 문희준 오빠를 좋아한 태정이, 6학년 때부터 ‘여섯 개의 수정’ 켄스키스를 좋아하기 시작한 저, 나오는

남자 가수마다 자기 거라고 우겨대는 민경이! 이렇게 셋은 중학교 1~2학년 때까지는 아주 양호하게 그냥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정도로 지내왔는데 정확히 중2 겨울에 민경 양은 ‘클릭비’라는 신인 그룹의 ‘하현곤’이라는 드러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수 좋아할 때는 듣지 않던 팬클럽까지 들어갔어요.

그 일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김 양은 공연장 어디 할 것 없이 다 쫓아다녔습니다. 별명이 ‘리틀 경림’인 민경 양은 외모, 목소리, 성격 모든 게 박경림 언니 같습니다. 학교 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소녀가 리본을 단 자기 몸집만 한 강냉이 자루를 메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녀는 민경 양이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현곤 오빠, 저 민경이에요~” 하면서 강냉이 자루를 안고 있는 ‘리틀 경림’을 보거든 민경 양인 줄 아시고 돌려보내 주세요.

그런 민경 양의 뒤를 잇는 태정 양은 더 심해요. 예전에는 “아~ 희준 오빠 얼굴이라든 한번 봤음 좋겠다~” 이러던 애가 오빠 얼굴 한 번 보고 나서는 “아~ 희준 오빠가 내 이름 내 얼굴을 알았음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희준 오빠네 간다고 선생님께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 길로 희준 오빠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꼼꼼하지 못한 성격에 십자수를 놓질 않나, 그 어렵디 어려운 장미꽃까지 접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우리 학교만 쉽니다. 그날 태정 양의 스케줄은 다 희준 오빠네 죽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희준 오빠한테 편지 쓴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자기랑 희준 오빠는 무슨 인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면서요.

우리 학교는 방송사와 굉장히 가까워요. 민경 양은 여의도중학



교, 저랑 태정 양은 윤중중학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H.O.T 나 클릭비가 컴백이라도 하면 걱정될 따름입니다. 만약 문희준 오빠나 하현곤 오빠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애네 둘은 어떡하죠?

그런데요. 더 문제인 건 제가 제 위치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멸절한 건지 극성스러운 제 친구 둘이 정상인 건지요.

김승현 아저씨, 양희은 아줌마~ 태정이랑 민경이한테 저 선희가 무지하게 사랑하고 둘한테 항상 고마워한다는 말, 꼭 전해주세요.

[2000년 5월 방송]

그때 우리는!

# 봉숭아 꽃물 들인 조일병

조병진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4

제가 첫 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봉숭아 물들이자.”

어머님께서는 봉숭아 물들이는 걸 좋아하셨고 저도 같이 물들였거든요. 매년 들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에 봉숭아 꽃잎과 잎사귀를 따서 3:1 비율로 섞고 백반과 소금, 식초 두 방울 떨어뜨려 곱게 뺨았습니다.

세월 따라 어머니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런 어머니 손톱을 곱게 물들이고 어머니는 제 손톱에 물들이고. 아 버님께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모자지간에 잘들 한다. 넌 군대 간 놈이 그게 뭐 짓이고?”

그런데 휴가가 거의 끝나갈 때쯤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하면 혼날 것 같았죠. 워낙 군기가 센 편이고 더구나 복귀 신고

도 해야 하는데 경례할 때 제 손톱이 붉은 게 보일 텐데. 그래서 작전을 세웠죠.

‘그래! 손톱 안 보이게 손가락을 붕대로 감는 거야!’

이윽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충성! 일병 조병진은 어찌고저찌고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손이 왜 이래? 어찌다 다쳤냐?”

“집에서 농사일 거들다 다쳤습니다.”

“저런 고생했구먼. 그래 부모님 도와드려야지. 그나저나 손 아파 어찌냐?”

“일병 조병진, 괜찮습니다!”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고생했으니 손가락 다 나을 때까지 훈련 열외 시켜줄게.”

신고를 마치자 중대장님께서서는 특별히 모든 훈련에서 제외시켜 주고 그 힘든 유격 훈련까지 빠지라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은근히 걱정되는 거 있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자꾸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를 며칠, 저녁에 씻을 때 중대장님께서 그만 제 손을 보셨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얼어붙었는데 눈썰미 없는 우리 중대장님!

“저런 아직도 빨갱구나.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해라. 손톱 빠지면 어찌냐?”

또 그렇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손톱이 빨리 자라기만을 학수고대했죠. 그러다가 부대에 일 년에 두 번 오는 헌혈 차가 도착했어요.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낼 때 간호사가 아가씨가 호호 웃더니 그렇게 많은 부대를 돌아다녔어도 봉숭아 물들인





군인은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헌혈 차가 떠난 후 중대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습니다.

“봉숭아 물들인 놈 누구야? 펜치 가져와. 어떤 놈인지 내가 손톱 다 뽑아버린다!”

아빨싸, 그 예쁜 간호사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후임병들한테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고 제대하는 날까지 완전히 찍혔답니다.

우리 중대장님~ 봉숭아물도 들여드리고 싶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간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겠죠?

[2003년 9월 방송]



## 나에게 쓰는 편지

여성시대는 방송 50주년을 맞아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노랫말은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나에게 쓰는 편지> 속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시처럼 아름답고 멋진 구절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전한 위로와 격려는 어느새 주변으로 흘러 따뜻하고 힘찬 응원이 되었습니다.

삶이 편지가 되고 편지가 노래가 된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 장독대 뒤에서 세상으로

서영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매곡로

01

**53** 년 전 일곱 살 꼬마의 별명은 ‘콩새’였다. 키가 콩알만하다고 콩새.

내가 살던 ‘송내’는 열 가구 남짓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봄이면 아까시 꽃향기가 마을을 감쌌고 겨울이면 초가집 지붕 위로 고요히 눈이 내려앉았다. 오빠들이 마을로 놀러 와 “콩새야!” 하고 부르면 부끄러워 장독대 뒤로 숨던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엄마는 나를 ‘막둥이’라 불렀다. 장사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알사탕 반쪽을 내 입에 넣어주시면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엄마 손을 잡고 십리 길 오일장을 걸어 다닌 기억도 생생하다. 냄새 구수한 풀빵이 간절했지만 ‘사달라’는 말을 차마 못 하고 침만 삼키며 걸어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가족의 땀으로 일군 수렁논 한 패기, 보리밥 위에 올려 먹던 쌀 한 줌. 쌀밥은 아버지와 오빠 몫이었고 자매들은 눈으로만 맛보았다. 자매들은 엄마의 짐을 덜기 위해 논밭일을 거두고 우물에서 물을 길고 거울에는 솔잎을 굼어모았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근심은 아버지였다. 술, 도박, 여자. 빚쟁이가 집에 들이닥쳐 엄마를 괴롭히는 일도 잦았다. 나는 아버지 명령 따라 양은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사러 다니곤 했다.

엄마는 홀로 여섯 남매를 책임지셨다. 육 남매는 자연스레 ‘희생과 인내’를 배웠고 서로를 보듬으며 자랐다. 가난했지만 엄마의 사랑 덕에 나는 밝고 순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

여덟 살 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야 내 이름 석 자가 처음 불렸다. 학교에서 줄을 세우면 늘 앞에서 다섯 번째 안에 서 있었다. 성적도 다섯 번째 안에 들었다면 다른 길을 걸었을까. 알 수 없는 물음표일 뿐이다.

입학 선물로 언니가 사준 빨간 트렌치코트와 티셔츠, 갈색 바지는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나의 ‘교복’이었다. 처음에 코트는 발목까지 내려와 치마처럼 보였고 바지와 티셔츠는 단을 세 번쯤 접어 입었다. 또래들이 “치마 입었네!” 하고 놀려도 개의치 않았다. 언니가 처음 사준 선물이고 빨간색이 너무도 예뻐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키 그대로 ‘콩새’로 살아가고 있다.

결혼 후 내 삶에 가장 큰 시련이 닥친 것은 IMF 시절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았고 거센 폭풍우 같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고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인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저린다. 다행히 두 아들은 묵묵히 학업을 이어갔고 우리 가족은 가진 것은 적어도 건강과 긍정적



인 삶의 자세로 버틸 수 있었다.

내 곁에는 늘 든든한 남편이 있었다. “버려야겠다”는 내 말에 그는 늘 “일단 두어 봐!”라고 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고장 난 물건들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 가족은 자연스레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절약의 달인이 되었다.

2004년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유통판매로 시작해 2006년 모 기업 공채에 합격해 인생 2막을 열었다. 동료들은 대부분 나보다 열다섯 살은 어렸고 알게 모르게

‘텃새’와 ‘갑질’이 존재했지만 나는 곳곳이 버텼다. 처음에는 계산원으로 출발했는데 1년 뒤 마케팅팀으로 발탁되었다. 컴퓨터 문외한이던 내가 매킨토시 디자인 컴퓨터를 다뤄야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무작정 부딪혔다. 홍보 디자인, 전단지 제작 등 새로운 업무에 몰두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야근은 기본, 공부는 필수였다. 힘들 때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문을 뇌며 버텼다.

배움 앞에서 나는 언제나 겸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배우려는 마음은 늘 현재진행형으로 두었다. 컴퓨터활용능력, 파워포인트, 그래픽 자격증, 디자인 전문 소프트웨어, 일러스트까지 차근차근 도전하며 역량을 키웠다.

돌이켜 보면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떠난 자리에서 곳곳이 버틴 이는 오로지 나였다. 그리고 내안의 ‘콩새’는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이제 정년퇴직까지 7개월 남짓. 인생 3막을 준비하며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자격증도 갖추었다.

내 마음을 붙잡은 글귀가 있다.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다. 너만의 계절도 반드시 온다.’

아직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설레고 기대한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 속 대사처럼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제 막 시작될 인생의 다음 장이 기다려진다. 삶은 결국 내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빛내는 것은 마음 깊이 간직한 ‘추억’이라는 선물이다. 장독대 뒤에 숨던 어린 콩새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 인생의 새로운 길 위에 당당히 서 있다.

나에게 쓰는 편지

# 문아 고생이 많았다

이정문 | 제주특별자치도

02

**칠** 형제 중에 여섯째인 나는 스무 살 되기 전부터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 결혼도 벌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형제들에게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나는 서른 전에는 무조건 결혼한다는 혼자만의 기준이 있었다. 29세 아홉수에는 결혼하지 않는 거라는 속설을 깨겠다는 생각으로 가진 돈 달랑 3,200만 원으로 무작정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

아내가 될 사람에게는 미리부터 말했다.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자신 있다고 그리고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다. 아내 될 사람은 까르르 웃으며 나의 허풍을 웃음으로 넘겨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자신감, 무슨 뽀뽀함이었는지 모르겠다.

연애할 때는 2,500원짜리 해장국도 왜 그리 맛있는지, 200원

짜리 자판기 밀크커피는 왜 그리 달달한지 하루가 멀다고 매일 만나도 저녁에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1999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다. 비록 사글세로 시작했지만 더는 저녁에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큰아들이 태어난 2001년 1월 어찌나 눈이 많이 오는지 ‘하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생각했다. 가진 건 없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는데 2003년 2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하고 죄 없는 내 어머니를 원망하며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다.

둘째 아들은 병을 안고 우리에게 왔다. 태어난 지 20일 된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가려고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탄 우리 부부는 너무나 무섭고 불안했다. 갑상선 전문병원을 찾아갔다. 핏덩이 같은 아기에게 주삿바늘을 꽂자 한없이 우는 아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결국 밖으로 나왔다. 여린 아내가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며 길고 험난한 검사를 받아냈다. 검사 결과는 걱정한 대로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기형아로 자란다고 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행복해야 할 둘째의 출생이 고통과 암흑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아들은 6개월 주기로 서울 병원에 다니다가 청소년 시기부터는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 아들이 이제 스물세 살이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 금연 23년이다. 그러는 사이 나도 50대 중반을 살고 있다. 머리는 많이 빠



지고 희끗희끗하다.

2년 전 5월에는 어머니를, 8월에는 아버지를 3개월 간격으로 먼 곳으로 보내 드렸다. 우리 형제들을 영원히 지켜 주실 것 같던 부모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생을 달리하셨다.

나의 부모님이 평생 나를 지켜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책임져야 할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 심한 사춘기를 겪은 큰아들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마음이 여러긴 하지만 착하고 든든한 큰아들! 둘째 아들은 아픔을 안고 태어났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주어 우리 부부를 미소 짓게 한다.

25살, 23살 두 아들은 군 복무도 마치고 대학 생활과 자기 인생을 설계하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자식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된다’고들 말하지만 내가 홀로서기가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 아들에게는 뭐라도 해주고 싶다. 대단한 부를 나누어줄 여력은 없지만 하고 싶은 공부라도 돈 걱정 없이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30년. 나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는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로 비칠지 모르겠다. 나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 본다.

“문아, 지금껏 어려운 일도 참아내느라 고생이 많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모질고 끝없이 채찍질하며 스스로 힘들어한 나. 나에게 툭! 툭! 어깨를 두드려준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든든한 두 아들이 있지 않은가. 노후가 외롭지 않은 이유다.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기도 하지만 밝은 노후를 위해 조금 더 힘내야지! 오늘도 파이팅!”

나에게 쓰는 편지

# 사랑하는 연자 씨에게

김연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03

내가 '사랑하는 연자 씨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지금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남편이 군 복무 시절 거의 날마다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보내왔다. '사랑하는 연자 씨에게'라는 말이 왜 그리 촌스럽게 느껴지던지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넣은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극 정성으로 보내온 그 편지 때문에 나는 남편과 결혼했다.

이제 '사랑하는 연자 씨'라고 불러줄 남편은 없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다. 그 20여 년 세월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연자 씨'라는 표현을 듣지 못했다. 나 역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다.

칠십이라는 나이를 코앞에 두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된 '나'

에게 내가 ‘사랑하는 연자 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연자 씨’에게 쓰면서 알았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말이 참으로 그리웠구나’라고.

1956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 오 남매 중 맏딸로 태어난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막내동생은 내가 11살 때 태어났는데 일하러 가신 엄마 대신 내가 업고 다니며 키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책상에서 ‘아기사슴 밤비’라는 동화책을 보았다. 그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집으로 가져왔다. 책 도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책은 평생 내 삶의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학교에 다닌 일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4명의 동생도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나는 2년 동안 직장에 다니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무조건 대학 입학を決행했다. 중학교 때는 ‘김소월 시집’을 읽고 시인이 되고 싶었다. 대학에 들어가면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되지 못했다. 그래도 ‘문학’은 내 가난한 삶에서 밥벌이가 되기도 했고 삶의 고비 고비마다 ‘책’과 ‘시’가 구원이 되어주었다.

‘내 삶은 이제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가 된 것이니 나는 나로 충분하다.’

어디에선가 이 문장을 만났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나는 나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연자 씨!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요.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고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듣고 밤새워 영화를 보며 눈이 퉁퉁 부어도 돼요. 인생에서 이제야 휴



가 같은 날들이 찾아왔네요. 돌아보니 살아온 지난 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아련하게 느껴져요. 꼭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한 번쯤 죽을 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왜 그리도 ‘사랑’이 두려웠을까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질문 같아요.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칠십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할머니라니 멋지네요. ‘사랑하는 연자 씨’를 연자 씨가 응원할게요.”

나에게 쓰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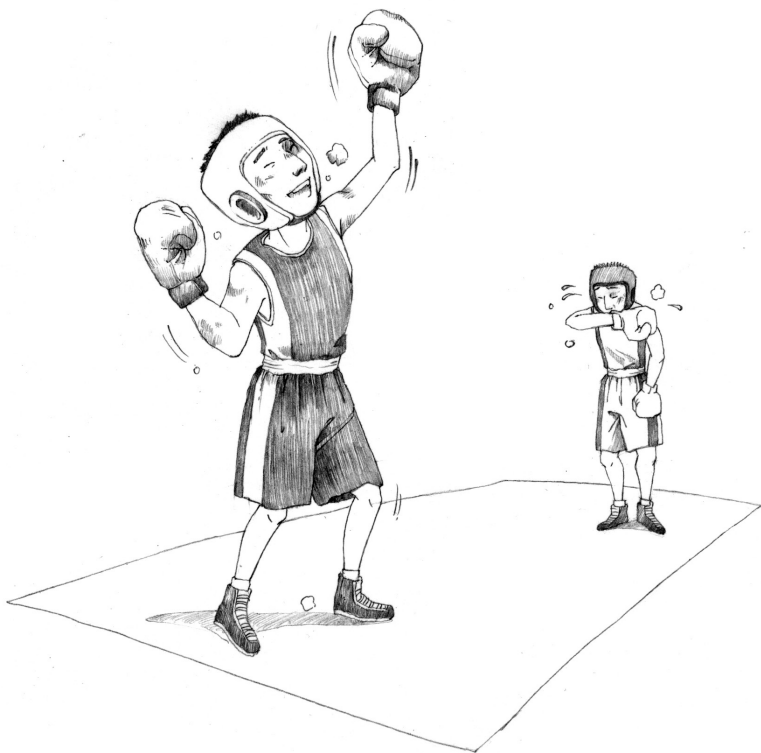
## 권투선수 생활 3년

한영찬 | 경기도 군포시

04

**꿈** 을 품고 3년의 짧은 프로권투 선수로 열심히 살아온 나, 한영찬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권투선수로 나가기에 여러모로 핸디캡이 있었던 나였다. 체급에 맞지 않은 단신의 키에 시합 때마다 10kg을 빼야 하는 몸무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3년의 짧은 프로 권투선수로 살아온 나, 한영찬을 칭찬해 주고 싶다.

나의 고등학교 3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쁜 나날이었다. 시골에서 1983년에 광주로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올라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 시내 거리를 걷다 권투 체육관을 보게 되었다. 링 위에서는 두 사람이 권투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다. 나도 권투선수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 마지막쯤에 나에게 꿈이



생긴 것이다. 권투선수의 꿈.

나는 챔피언의 꿈을 안고 본격적으로 권투를 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으로 체육관을 옮겼다. 프로선수가 되려면 프로 테스트를 거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권투하느라 22세에 군대를 갔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대하니 나이가 24세. 권투선수로 나아가기에는 조금은 늦은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권투선수의 꿈을 품었기에 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후에 프로 권투선수를 시작하였다. 권투라는 운동을 해보니 정말 지옥 같은 훈련에 피 말리는 중량과의 힘든 싸움. 시합 때마다 체중을 뺄 때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의 권투 때려치워야지’ 하며 되뇌기를 수도 없이 하곤 했다. 몸무게를 뺄 때면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나는 체중 조절을 위해 새벽 거리를 뛰었다.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 힘이 없고 한 방울의 땀을 빼기 위해 나는 새벽 거리를 뛰다가 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기를 여러 번. 그러나 나는 일어나서 뛰어야 했다. 나는 뛰면서 또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놈의 권투, 이번 시험만 끝나면 때려치울 거야’ 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난 다시 글러브를 끼고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두들겼다.

경기장 안에는 많은 관중으로 가득하다. 나는 비록 신인선수이지만 세계 타이틀 매치 경기를 보러온 관객들이 나를 응원 하러 온 사람들로 착각한다. 나와 상대 선수가 링 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치고박고 피투성이가 되어 주먹을 휘두른다.

경기 도중 나와 상대 선수가 난타전을 벌인다. 상대 선수의 주먹을 맞고 링 위에 다운되었다. 나는 일어나서 주먹을 뺀어 상대를 다운시켰다. 관중석에서 관중들은 열광의 도가니다. 국내 신인 선수들의 시합인데도 관중들은 재밌어한다. 경기가 끝나면 승자는 기쁨을 누리지만 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링을 떠나간다. 관중석에서 열광하며 환호하던 관객들이 하나둘 경기장 밖으로 떠난다. 경기장은 어느덧 고요해진다.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권투선수 시절을 생각하며 이겨내며 살아간다. 승자나 패자 모두 내일의 챔피언을 꿈꾸며 나아간다. 모두가 챔피언이다.

나에게 쓰는 편지

## 버티면 이긴다

이정현 | 서울시 도봉구

05

**M** BTI 중 극 I형에 속하는 난 혼자 책임지고 혼자 결정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지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로 취업할 때도 나의 다짐과 의지보다 서울에 있는 막내 고모의 도움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자신은 없었지만 폭력적인 아빠를 떠날 기회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에 겁이 난다는 마음보다 아빠 품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다.

고모들의 도움으로 취업도 하게 되었고 사회 초년생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야만 했다.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고개도 들지 못했고 말도 잘하지 못해서 ‘네, 아니오’ 단답형으로만 끝냈다. 사회초년생 때 땅만 보고 걸어 다녀서 직장에서 이상한 아 이로 취급받았다. “바닥에 뭐 돈 떨어졌나?” “너 안 잡아먹는다





고개 좀 들고 다녀라” 등 안 좋은 말도 들었지만 힘듦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만 했다.

그래도 내가 혼자 서울에 올라온 일과 사람 많은 곳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운 일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본 적이 없다. 하물며 아빠의 탓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기댈 수 없는 아빠의 존재를 이미 알아버려서일까? 그렇게 난 19살 때부터 혼자 잘 살아가야 했다. 나중에 결혼도 내가 벌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다 날 사랑해 주는 영원한 나의 편 지금의 남편을 만나 뭐든지 잘한다, 못생겼어도 네가 젤 예쁘다, 자기를 먼저 챙기기보다 내 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선으로 해주는 남편 덕에 난 남편을 위해서는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극 I형에 부끄러움이 많은 난 꿈이 사장님이 되는 거였다. 어떤 구체적인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사장님이 되는 거였다. 남편이 당

신은 뭐든 하면 잘한다는 말에 힘입어 공부를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가게를 운영 중이다. 꿈은 이루었다. 자격증을 딸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남편이 “조금만 견뎌보자. 잘할 수 있다”는 말에 독서실 자리 한 칸 포스트잇에 ‘버티면 이긴다’란 글귀를 적고 견뎌다.

아~ 어찌어찌해서 버티니까 내가 원한 일이 이루어지네 하고 그 말을 새기게 되었는데 가게를 차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작한 것도 한몫했고 내가 몸이 아픈 것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어려움이 생겼다. 아침에 출근할 땐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며 씩씩하게 출근하는데 시간이 흘러 퇴근할 땐 “역시 오늘도 별일이 안 생기네. 적성에 안 맞는 게 맞네” 하고 의기소침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 휴대폰 메모장에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적어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몇 개 적어두었는데 남편에게 깜짝선물로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힘들음을 참을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PC 모니터 앞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19살 초년생 때도 어려움은 있었고 50살이 되어서도 그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쪽 진행형일 거라고 생각하며 ‘버티면 이긴다. 내가 꼭 이긴다’라고 크게 적어두었다.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 덕분에 사장님이 되는 꿈도 이룰 수 있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작은 것부터 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나의 바람이다.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참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조용히 건네 본다.

나에게 쓰는 편지

# 그날의 나와 오늘의 나

김영아 | 경기도 광명시

06

## To. 1986년의 나에게

너무 더워서 오늘도 무척 힘든 하루였어요. 동일여중 2학년 3반 교실에는 육십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풍기 하나 없이 연신 부채질만 해댔지요. 도대체 이 지겨운 여름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아빠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엄마는 아빠에게 ‘한여름 꿀벌, 한겨울엔 베짖이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개미처럼 일하세요. 지하수 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운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지난달에는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달동네에서 일주일 넘게 땅을 뚫었는데 물이 한 모금도 안 나와서 허탕이었죠. 소주를 드시고 슬쩍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일 없는 겨울에 종일 안방 차지하고 기타나 치시는

아빠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확실히 돈을 벌어오시니까 그런지 여름 밥상에 고등어자반, 고추장 불고기가 올라온다니깐요. 겨울 되면 김치국에 찬밥 오래 끓여 먹는 김치죽을 먹거나 채 썬 동치미에 된장찌개 비벼 먹는 게 전부니까요. 올해는 제발 늦게까지 더웠으면 좋겠어요.

참, 엄마는 오늘 또 울었어요. 주유소 일 끝나고 쉬고 계시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우르르 놀러 와서 같이 고스톱 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잘 노시다가 202호 아줌마가 그놈의 아들 유세를 또 했나 봐요. 진짜 지겨워죽겠어요. 딸만 넷, 아들 없는 게 그렇게 죄예요?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씩씩대셨는데 아마 누가 또 고스톱 치자고 하면 놀러 가실 테니 걱정은 안 해요.

내년에는 연합고사 보잖아요. 확실하게 인문계 가는 아이들은 열다섯 명 정도라고 해요. 저야 당연히 가고 싶죠. 오늘도 아침밥 먹는 자리에서 아빠는 “여자가 무슨 대학? 상고 가서 은행 들어갔다 결혼 잘하면 장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싫어요!’라고 대꾸하려다가 꼭 참았어요. 전 공부 잘해서 꼭 대학 다니고 싶어요. 어 떤데요? 지금 계신 곳은 여기와 많이 다른가요?

## To. 2025년의 나에게

연일 무더위가 계속돼 온 나라가 난리야.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고 휴대폰으로 폭염주의보 문자까지 오는 걸 보니 난리란다.

지난 주말에는 부모님 계신 강원도 양양에 다녀왔단다. 요즘 아빠는 앞 치아까지 임플란트한다고 우선 발치부터 하셨어. 자꾸 엄마는 사진 찍어 놓자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꾹하고 입을 다무셔서 다들 웃고 그랬지. 엄마 무릎은 여전히 걱정이야. 요즘도

아빠는 아코디언에 색소폰까지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서. 엄마랑 봉사활동도 여전히 잘 다니시는 거 같아.

그때 우리가 살던 금강연립 A동 301호는 한참 지나서야 재개발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나? 첫 우리 집이라고 온 가족이 감격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야.

지금 난 냉방이 잘 되는 카페에 있어. 많은 이들이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각자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 중이야. 1986년에 상상한 미래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을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야. 밤잠 못 자고 고민도 하게 되겠지. 어찌면 큰 소리로 싸워 네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도 있을 거야. 힘내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포기하지 마. 너의 결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단다. 얼마 전에 셋째인 수진이가 그러더라고. 언니가 대학을 가는 바람에 줄줄이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이 당연시 되었고 그 덕분에 취직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외삼촌이 한참 쓰다 물려주신 낡은 책상 앞에 웅크리고 있을 너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우리, 열심히 해 보자.

‘너’가 바라고 상상한 ‘나’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만족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 앞으로 다가올 순간순간의 너의 선택과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가끔은 지독한 후회와 실패로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잠깐만 쉬었다가 털고 일어나 묵묵하게 걸어가자. 그때의 네가 나를 만들었고 나는 널 늘 그리워하고 있단다. 참, 새벽에 자기 전에는 스탠드 불 좀 끄렴. 아침에 엄마 또 폭풍 잔소리하실라. 잘 자. 영아!

나에게 쓰는 편지

## 기적이라는 두 글자

장정미 | 경남 사천시 정동면

08

**요**즈음 나는 성격 탓도 있지만 최근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큰일로 인해 옆에서 독하고 던진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예전엔 젊음과 나의 짝궁이 내 뒤를 받쳐주었는데 지금 나의 든든한 짝궁이 많이 아파 나 자신도 약해지고 있다. 내가 강해져야 사랑하는 내 짝궁도 강해질 텐데 용기와 희망은 어디서 샘솟는지 하염없이 찾고만 있었다.

며칠 전 잠결에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잠결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느껴졌다. 용기와 희망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남편이 잡아 준 따스한 손길로 인해 얼었던 내 마음이 눈 녹듯 녹으며 뭔지 모를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 내가 강해져야 해. 나도 모르게 내게 희망이라는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었다. 그 온기가 고스란히 남편에게도 전해지겠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용기를 내~.

나에게 쓰는 편지

## 그래도 인생은

박용기 |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09

저는 오늘 이 라디오 사연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도 저처럼 삶의 무게 앞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을 겪으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의심했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지 자문하면서 한참을 헤매곤 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에 괴로워하며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저를 지지하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는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내밀어주었고 그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제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늘 제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 한마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난이 길어도 부모님의 그 믿음은 저에게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제 삶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제 친구들도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친구들은 늘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저 말없이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고 때로는 기분 좋게 웃게 해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마음을 받으며 ‘이 세상에 혼자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덜 느껴졌고 그들의 응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온 많은 선생님과 멘토들은 저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어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들의 말씀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제 삶의 중요한 좌표가 되어줍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하나 내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곁



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기에 저는 그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묻게 돼요. “그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그때마다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제 삶은 아마 지금처럼 힘차게 당당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제 삶의 큰 축이었고 저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잠시 멈추고 그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들이 보내는 응원의 말을 듣다 보면 점점 힘을 내게 될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만 그 길을 걷는 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누군가의 응원을 마음 깊이 느끼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라디오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자.’

오늘도 제게 힘을 주는 모든 분께 감사하며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끝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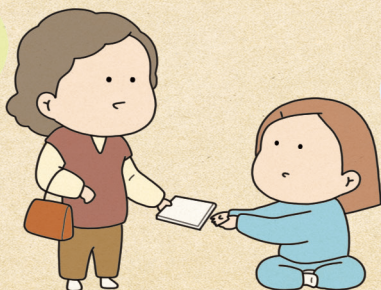
여성시대 가족 김진홍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릴 적 책을 싫어하던 제게  
어머니는 은행에 다녀오실 때마다  
'여성시대'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한 번  
읽어보렴.



적당한 글과 그림,  
강지 않은 이야기로 꾸려진 그 책의 여운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엔 채소 농장에서 일하며  
여성시대를 듣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울며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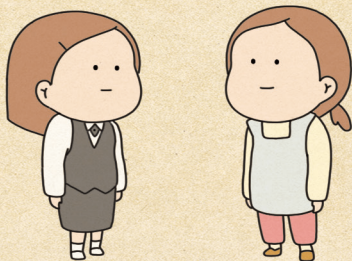
아마 저는 그때부터  
책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마흔이 넘은 지금은  
적어도 한 달에 책을 열 권은 읽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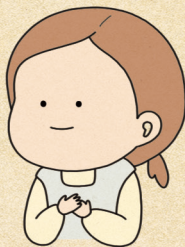
여칠 전 당당이 님들과 하림 님,  
양희은 님, 김일중 님이 함께 부른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를 듣는데



처음 여성시대 책을 읽던 중학생 시절의 나부터  
지금의 나까지, 그 세월이 스쳐가며  
마음속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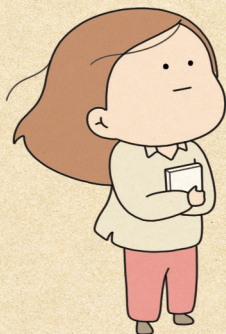
그 노래가 마치 저에게

잘 해왔다.  
잘 하고 있다.  
잘 해낼 거다.



라는 응원처럼 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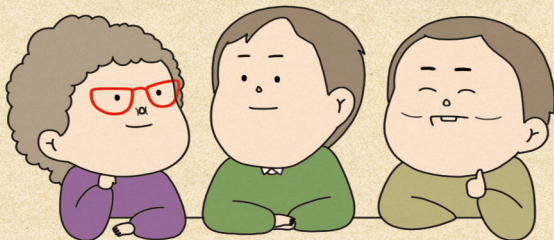




어제의 내가 모여 오늘이 되고  
오늘의 내가 모여 내일이 되니

앞으로도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양희은 님, 김일중 님  
그리고 한때 저와 함께해 주신 강석우 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당이 님들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거래고객

**인천더드림병원 김충규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인천더드림병원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다.

현재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비롯해 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척추관절 질환에 특화된  
전문 의료진이 다수 포진해 있다. 현재 24시간 응급진료 및  
수술 등 응급의료시설을 함께 운영 중이다.

2015년 개원한 인천더드림병원은 정형외과·신경외과 중심의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실력이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예상치 못한 응급 외상, 스포츠 손상, 퇴행성 관절 질환 등 환자에 따른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다. 더불어 최첨단 MRI, CT 등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 장비 및 최신 수술 장비, 쾌적한 병실과 재활치

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수술 후 회복과 재활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더드림병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단부터 치료, 수술, 재활,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시간 응급 외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플 때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병원



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더드림병원의 의료진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들이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특히 허리통증으로 오랫동안 견지 못하다가 수술과 재활 치료를 통해 걸어서 퇴원했던 환자가 의료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이처럼 환자들의 회복과 감사 인사가 병원 운영과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초기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외래 환자 수가 급감하였고 병

원 운영까지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코로나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 사전 예약 및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빠르게 병원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먼저 아픈 당신이 되어 봅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 기술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관심과 공감, 신뢰를 주





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뛰어넘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인천더드림병원은 단순히 수술이나 치료가 끝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 회복과 건강 유지, 삶의 질 향상까지 폭넓게 도와주는 ‘치료 그 이상을 제공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수술 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생활 속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건강 강좌, 의료봉사,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인천더드림 병원은 환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약할 것이다.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장은선 지점장은 “IBK기업은행은 인천더드림 병원이 개원할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 기업은행의 협약으로 출시된 의료사업자 전용 상품을 통해 적





기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 병원 설립  
과 운영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한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며 “IBK기업은행은 병  
원 운영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고 인천더드림병원은 IBK기업  
은행 고객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며 서로 윈윈하는 상생파트너십  
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  
러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  
탕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회를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나가  
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더드림병원 김충규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부평지점 장은선 지점장

### ❗ 인천더드림병원 김충규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실력이 뛰어난 젊은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라.
2. 치료 후 회복과 재활까지 책임지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
3. 환자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라.

#### 인천더드림병원

대 표 김충규  
전 화 1661-1177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3  
홈페이지 <http://the-dreamhospital.com/>



## 가득 찬 하루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중학교 동창들을 근 10개월 만에 만났다. 1월에 만났을 때 자주 보자 했지만 열 달이 후딱 지나버렸다. 남편들 건강 때문에 마음 놓고 집을 비우지 못했고, 증세가 나빠지면 병원에 함께 가야 하거나 초조하게 외출복 차림으로 자면서 견디다가 긴장이 풀려 정작 환자 아닌 보호자가 앓아눕기도 했단다. 내 눈에는 61년 전 그대로 곱디고운 친구들이다.

남편이 먼저 간 동창들 얘기가 오갔다. 이별 이후를 견디려고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로 안 가본 데 없이 국내 관광을 따라다니며 많이도 걸었다는데, 1주일 입원 후 아직도 퇴원을 못한단다. 신우신염인데 (너무 열심히 걸어서?) 온몸에 염증이 많아 병원 밥을 더 먹어야 한단다.

“걸기가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닌가보네. 걸으면 염증 이길 힘이 생기는 줄 알았어~”

“아닌가봐.”

“나도 염증지수 높을 것 같아. 검진 때 한 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어린 날의 친구들과 짝 찬 하루를 즐겼다. 내가 사는 일산에서 친구들 사는 분당까지 2시간 운전하고 죽전역에서 출발하여 부여 ‘이만총총31’까지 2시간 반 운전했다. 가는 길에 총 4시간 반 걸렸다.

문제는 오는 길, 부여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2시간 반, 친구들 내려주고 일산 집까지 오는데 3시간. 나의 휴일, 친구들과의 온전한 하루는 10시간 운전으로 마무리되었고 집에 오자마자 세수 후 그대로 뺏어버렸다. 그래도 행복했다.

그날 새벽 2시에 켜고 모처럼 쉴레었으니 잠 못 잤어도 좋았다. 나는 참치샌드위치를 만들고 굴과 바나나, 초콜릿, 카스텔라 등을 준비했고, 친구들에게는 각자 마실 물만 부탁했다. 우리 넷은 실새 없이 이야기했다. 가득 찬 하루였다. 내 생애 최장시간 운전이었다.

드디어 며칠 후면 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린다. 12월 24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다. 오랜만이라 긴장이 된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무산됐었다. 하필 관객층 연령대가 초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으니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70대 중반에 하는 공연이니 ‘앞으로 과연 몇 번이나 내게 무대가 마련될까?’ 싶다.

8살 위 언니들이 내 나이일 때 이렇게 말했다.

“애, 밥이라도 자주 먹자. 우리 앞에 시간 별로 없어. 금방이야. 자유롭게 운전해 가고 싶은 데 다니는 것도 복이다. 난 차 사고 나서 폐차 시켰어. 택시 타고 다녀. 언제 밥이나 먹자 해놓고 몇 계절이 가요.”

우리 동기들 중 운전해서 장거리 달리는 친구는 거의 없단다. 일단 면허 반납하고 버스나 전철, 대개는 많이 걷는단다. 같은 동네 사는 동기들끼리 뚜벅이 모임이 있어 수시로 모여 걷는다는데 부럽다. 한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친정오빠와 등산을 하고 나머지 옛새는 빈둥댔다는데, 요새는 산에 안 가는 대신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걷는데 벌써 6개월째란다. 스마트 워치에서 어찌고저찌고 뭐라뭐라 표시가 되더라. 그게 등산보다 낫다고, 매일 꾸준히 쉽 없이 하는 게 최고로 무섭단다.

집에 오니 친구의 특이 먼저 와 있었다.

<넌 베스트 드라이버! 네 수고 덕분에 우린 편했어요. 꿈꿨나실네. 남편 걱정했는데 두 집 다 아무 일 없었다니 다행. 몸살 나지 말고 잘 지내. 이번 한 주 남편 때문에 긴장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 무사한 주말이라 다행. 두고두고 선명하게 기억될 것 같아. 잘 자라.>



## 눈앞의 산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12월호 월간 여성시대에 실릴 글이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은 202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틀 전이다. 아마 내일이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학교에서 예비 소집을 할 테고 모레 목요일 13일에는 드디어 시험을 치르겠지. 일기예보 상으론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7년. 내가 고3 수험생이던 해. 수능 백일 전부턴 교실에 백일 달력도 걸렸다. 디데이를 향해 하루 한 장씩 뜯어내면 숫자도 줄어드는 달력. 당시에 우리 반에선 내 학급 번호랑 똑같은 달력 숫자를 뜯어다 태우며 원하는 대학교 진학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미신이 돌았다. 그때 내 번호가 53번인가 그랬는데 야자시간 중간에 운동장에서 그 달력을 태우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난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개뿔. 점수에 맞춰가는 거지. 그리고 보니 한 학급에 50명이 넘었네. 궁금해서 찾아보니 1998학년도 수능 응시생 수가 88만 5천 명이었다. 올해는 55만 명. 그나마 작년보다 3만 명이 증가한 거라고 한다. 황금돼지띠의 힘.

지금도 그렇겠지만 수능 당일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으로 미역국이 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미역국인데 그날만은 혐오식품이 된다. 혹시나 깜빡하고 미역국이 아침 밥상에 나왔다면 기겁을 하기 십상이다. 다행히 올 엄마도 미역국은 피하셨고,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도 특별히 배탈이 나지 않을 반찬들로 신경 써서 싸 주셨다. 기름지거나 상할 수 있는 것들 피하기. 그맘때쯤 각종 미디어에서는 수능 당일 도시락 반찬으로 추천하는 식단들도 알려 준 거 같다. 순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초콜릿도 준비했다. 뭐 혈당수치를 신경 쓸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수험생인 나와 내 가족들도 모두 긴장하는 가운데 시험이 끝났다. 수능 한파로 인해 패딩을 입고 시험장엘 들어갔는데 다 치르고 어둑해진 저녁에 시험장을 나설 때의 그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의 느낌이 아직도 떠오른다. 그리고 저녁에 차분히 교육방송을 보며 점수를 매겨봤고 상당히 높은 점수에 쾌재를 불렀고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모두가 잘 봤더라는 물수능 세대의 기억이다. 이것도 벌써 28년 전 얘기네.

돌아보건대 한 번의 수능이 그 후 내 인생을 온전히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또 살다 보면 수능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들도 생기지만, 올해의 수험생들이여 이제 눈앞의 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일단 이 산을 넘는 것에 집중합시다. 모두가 시험 잘 보길 바란다는 기도는 아마도 각자가 준비한 만큼 그 안에서 실수 없이 잘 보라는 의미일 터. 거기에 잘 찍는 운도 조금 따르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월간 여성시대 12월호에서 볼 때면 이미 시험도 끝났겠다 얼마나 좋아.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국민연금 받거나  
IBK로 국민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7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돈든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이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76호(2025.06.13.)[유효기간:2026.06.12]

·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당신도 누리보세요

IBK가  
바꾼 삶.

어디에서나 창업을 하는 삶  
조건없이 카드 혜택을 누리는 삶  
포인트가 모여 생활비가 되는 삶  
군생활마저 다채로워지는 삶  
은퇴 후까지 풍요로운 삶

기업과 개인 금융의  
혁신으로 가득 찬  
누구나 혜택받는 세상

IBK기업은행에서  
당신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I salute Korea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